

전북연구원 **함께 혁신, 함께 성공, 새로운 전북** 보도자료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지역개발연구부 장남정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62)
- 담당자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22년 09월 02일부터

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, 탄소중립 초석으로 활용해야 **전북연구원,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제안** **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맞춤형 모델 개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전환 기반구축 강조**

-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,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'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'를 도입함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(장남정 선임연구위원)을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앞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음
-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부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수단임

- 특히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누구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정책결정자,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
- 서울, 경기, 경남, 대전 대덕구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녹색재정 정책을 시범도입하여 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음
- 금회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라북도 예산서 기준 회계별, 실국별, 감축부문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분석하고,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도입의 기본방향(안)을 제시하였음
- 2022년 전라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예산 대비 감축사업은 4.1%, 배출사업 15.2%, 복합사업 7.8%, 중립사업 72.9%의 비중을 보였음
- 시범사업 추진은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, 전문지원 조직의 실무지원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
-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지자체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의 하나로 기후위기 정책사업 유효성 평가 및 모니터링, 담당자의 인식개선, 부서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